

01 | 19년 수능 16~20

1. 사회, '계약의 개념과 법률 효과'

이 글은 매매 계약 시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를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의 일종이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키는데,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예를 들어, 을이 자신의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럴 경우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갑은 을에게 그림 A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갑이 매매 대금을 을에게 지급한 상황에서 을의 과 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다고 하면 을의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된다. 이럴 경우 을은 이행 불능이 자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갑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여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해제하면 이전의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되므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주었던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주제] 매매 계약 시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

2. '인과관계'에서 해야 하는 일

먼저,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한다.

원인은 그에 대응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일으킨다고 보는 직관. 즉 원인이 주어졌는데 결과가 뒤따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과 관계는 우연적인 관계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까마귀가 나무에서 날아갔는데 배가 떨어졌다'는 것을 대개 인과로 보지 않는 까닭은 그게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중간에 복잡한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원인'과 '결과'가 구조적으로 배치되어있다.

둘째로, '원인'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원인과 결과는 그 내재적인 성질에 있어서건, 외재적인 관계에 있어서건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직관. 즉 원인과 결과는 서로 충분히 관련되어야만 한다. 두 '변인A'와 '변인B' 각각이 따로따로 제 3의 변인인 C와 연결된 경우, A와 B는 "충분히 관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인이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야 한다.

- 원인이 사라짐
- 다른 변수가 추가됨

지문분석

①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① 계약과 약속의 관계

②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② 계약의 예시

/③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③ 계약과 연관된 개념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 ④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④ 개념의 예시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 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

⑤ 채권과 법

⑥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⑥ 법 적용의 예시

// ⑦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 ⑧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 ⑨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⑦ 또 다른 예시

⑧ 이행불능

⑨ 이행불능의 예외 : 채무불이행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p>/ ⑩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p> <p>// ⑪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p>	<p>⑩ 이행불능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률 효과</p> <p>⑪ 계약 해제 이후의 예시</p> <p>⑫ 원상회복 청구권</p>
---	--

[글쓴이의 관점]

계약 - 법률효과 - 법률행위

1.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2. 계약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3. 계약이 제대로 '못'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이해를 제대로 하기 힘든 포인트] : 3. 계약이 제대로 '못'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 ① 이행불능 :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법률효과가 발생함
↓
- ② 채무 불이행 : 이행불능에 따른 법률효과
↓
- ③ 계약 해제권 행사 :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법률행위
↓
- ④ 원상회복 청구권 : 계약이 사라진 후, 청구권 발생

01

원인과 결과

1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 ②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⑤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문항 번호	오답률	정답	선택지별 비율				
			①	②	③	④	⑤
16	56.6	3	19.6	9.8	43.4	16.8	6.7

2, 4, 5 선지의 경우, 1대1 대응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3번 선지의 경우, 아래 문단에서 오답을 확인가능한데

: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행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아니다. (법률 행위의 경우, 2문단에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문장에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를 통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없어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을 통해서'라는 표현과 '원인이 제시되고, 결과가 나온다'라는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를 잡을 수 있다.

3번에서 보이는 구조적인 방법을 통해, 1번 선지의 근거를 확인 할 수 있다.

2문단에서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6문단에서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 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법률 행위가 없더라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라고 언급하였으며, 4문단에서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실체 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민사 소송법이나 민 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 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3문 단에서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4문단에서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 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갑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따라서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 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실 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02

원인과 결과: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17.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 ② ㉡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 ③ ㉠과 ㉡은 ㉠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 ④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문항 번호	오답률	정답	선택지별 비율				
			①	②	③	④	⑤
17	53.5	5	6.5	8.1	19.1	16.1	46.5

㉠을의 채무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행의무'이며, ㉡갑의 채권은 '원상회복청구권'이다.

㉠과 ㉡은 그 원인이 다르다. 다시 말해 ㉠은 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며, ㉡은 '그림이 불타 없어짐'에서 비롯된 것이시기 때문에 원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은 먼저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로 설명할 수 없다.

5번 선지는 ㉠과 ㉡ 이행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번 선지에서 ㉡은 계약이 사라진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과 ㉡의 변제 관계를 성립하지 않는다.

EBS 해설

3문단에서 ㉠은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물건의 소유권 이전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5문단에 따르면 그림 A의 소실로 ㉠은 이행 불능이 되었고, 6문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처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7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따라서 ㉡에는 금전 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고, ㉠은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수인인 갑은 매도인인 을에게 그림 A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이행 의무를 갖는다. 또한 매도인인 을은 매수인인 갑에게 그림 A를 인도받을 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그림 A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행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은 매수인인 갑의 청 11 구와 매도인인 을의 이행으로 소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6, 7문단에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이때 ㉠을 성립시키는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것인데, 이 경우에도 계약 해제는 을의 승낙 없이 갑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하며 이로써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5, 7문단에서, ㉠은 그림 A의 소실로 이행 불능이 되고, 그 결과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되면서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이행되지 못한 결과로 ㉠이 발생한 것이다. ④ 2문단에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하고 있는데, 5문단에 따르면 그림 A의 소실로 ㉠은 이행 불능이 되었고, 그 결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 이처럼 계약이 무효가 된 상황이므로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Remark 01

결과는 원인 없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즉 사건들은 특정 조건하에서만 발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에 관한 조건들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모든 자연탐구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 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구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이란,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불이 붙는데 있어서 산소는 필요조건입니다. 만약 불이 났다면, 그 장소에는 반드시 산소가 있었을 겁니다.

충분조건(sufficient condition)이란, 만약 이것이 있다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산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산소가 있는 상황에서 탈 것에 온도가 발화점을 넘어간다면 반드시 그 물건에는 불이 붙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불이 붙는 상황에 대한 충분조건은 위에서 말하는 조건들이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인이라는 말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즉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당면한 문제에 해결책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면, 이 때 해당하는 원인은 필요조건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원인은 충분조건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서 긍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우 일 때, 우리는 충분조건으로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원인	결과	
인과관계를 강화하는 데이터	O	O	- ①
	X	X	- ②
인과관계를 약화하는 데이터	O	X	- ③
	X	O	- ④

①번과 같은 경우, ‘원인이 존재할 때 결과가 존재한다’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①번에 해당하는 원인은 ‘충분조건’입니다. 반면에 ②번과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②번의 원인은 ‘필요조건’입니다. 이 해석을 확장하면 ③번은 충분조건을 부정하는 자료이며, ④번은 필요조건을 부정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만 떠올려봅시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인과관계는 근본적으로 귀납에 해당합니다. 귀납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자료에서 항상 ①, ②번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즉, ③, ④번이 인과관계 자료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03

선후관계와 인과관계

18. ㉠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 ②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 ③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④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 ⑤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Keyword

- ① 이행불능 :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법률효과가 발생함
↓
- ② 채무 불이행 : 이행불능에 따른 법률효과
↓
- ③ 계약 해제권 행사 :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법률행위
↓
- ④ 원상회복 청구권 : 계약이 사라진 후, 청구권 발생

18번의 경우, 17번과 연관된 문제다.

'㉠의 상황'은 ㉡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며, 18번의 선지는 '㉠의 상황'의 결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열한 것이다.

3번 선지에서,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2번 선지에서도 계약은 해제되며, 한편으로 이미 목적인 '그림'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재산권 이전은 불가능하다.

4번 선지에서 '이행불능'은 '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라고 말할 수 없다.

5번 선지에서 갑의 '원상회복 청구권'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3문단에 따르면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㉞는 을의 과실로 인해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며, 6문단에 따르면 이처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즉 계약 해제권을 갖게 한다. 따라서 ㉞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한 ①번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소실되어 ㉞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갑이 소를 제기하더라도 매매의 목적이 된 동산인 그림 A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③ 7문단에 따르면 원상회복 청구권은 계약으로 인해 이미 이행된 것이 있을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소실되어 ㉞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 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될 뿐이지 갑은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다. ④ 5문단에 따르면 ㉞의 상황은 을이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㉞의 상황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⑤ 5문단에 따르면 ㉞의 상황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은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이며,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할 수 없지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04

근거찾기, 다시말해 기준을 확인하자

1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 ①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 ②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문항 번호	오답률	정답	선택지별 비율				
			①	②	③	④	⑤
19	60.2	3	6	18.8	39.8	21.4	10.3

Keyword

- ① 이행불능 :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법률효과가 발생함
↓
- ② 채무 불이행 : 이행불능에 따른 법률효과
↓
- ③ 계약 해제권 행사 :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법률행위
↓
- ④ 원상회복 청구권 : 계약이 사라진 후, 청구권 발생

선지에 나온 '매매'는 지문에서 나온 그림을 사고 파는 '매매'를 말하며, 지문에서 나온 '매매'는 '계약'의 예시였다.

<보기>에서 증여는 증여자만 '이행 의무'가 있으며, '유언'은 유언 의사표시만 있기 때문에, 두 행위는 모두 '단독행위'다.

3번 선지의 '변제'의 의무는 '이행의무'이기 때문에, 증여가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3번 선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무인 '이행의무'와 권리인 '청구권'의 양면관계를, 즉 각 당사자간에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번 선지의 경우, '단독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분명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이지만, 의사표시가 '양쪽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계약 해제권 행사'에 대해 설명할 때, '단독행위'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EBS 해설

2문단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며, 변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보기>의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지므로 변제의 의무는 증여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매매는 매도인의 '팔겠다'는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매수인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법률 행위이다. <보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2문단에 따르면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고 하였으므로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계약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법률 행위의 일종이라고 하였는데, <보기>의 증여는 계약이므로 증여 역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기>의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증여와 유언은 모두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매매를 하는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 <보기>의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 즉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의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필요없는 반면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